

† 마테데스는 켈자라는 뜻의 헬라이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를 소망하는 신자를 돕기 위해 발행됩니다 †

마테데스



표어 : 너나 잘하세요

은석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자 되는 것에
마음을 줍니다.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궁극적인 생명을 통해서
거룩한 두려움을 알게 된
신자으로써 어떤 통령에서도
예수님의 놀라운 일에 마음을
집중하기를 힘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잠정적일
뿐이며 궁극적이지 못함을
잊지 않고 세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참된 생명을
예수님에게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으로도 마음이 채워지니

신윤식

반가운 봄
따뜻한 햇살로
포근해진 마음 못 이겨
주섬주섬 옷 갈아입고
산행에 나선다.

바람이 이제야 눈을 떴나.
드넓은 공원 저쪽
산자락의 향기를 등에 업고
게으른 걸음으로 다가와
코 밑에 살며시 내려놓는다.

하얀 구름 속에
산책하는 길 하나 내어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나처럼 봄기운에 취해
나들이 나선 듯
바위틈에 고개 내민
작은 꽃 한 송이가 반갑다.

평강이 흐르는 길
작은 것으로도 마음이 채워지니
늘 소망하는 그분
먼저 마중 나와
이 길에 숨어 계시는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0-5831-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3.4.21

발행호수 제21권 16호

주께서 제자들
에게 가르쳐 주
신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
만이 할 수 있다고 했습니
다. 그 이유는 주의 기도
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기
도와는 그 방향을 달리하
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의 기도는 그 방향이 전적
으로 자신을 향해 있습니

다. 자신을 현재보다 좀 더 확대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으로만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자기 소원이 되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많은 사람이 찾는 넓고 편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가신 자기 버림이라는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자신의 이름과 자기 확대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원하지 않는 길입니다. 누가 자신을 버려야 하는 길을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좁은 길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기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여 얻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어지는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간절함을 내어 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강령하는 기도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도 자녀 됨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을 받았기에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기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다움이기에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주의 뜻에 일치된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니까 모든 기도를 들어 주신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자녀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자신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에 있는 신자라면 무

주일오전설교
눅 11:14-26

하나님 나라

엇보다 자녀로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 마음을 두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은 선한 것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 주실 것이라는 생각도 착각임을 알아야 합니다.

가령 대한민국의 복음화라는 뜻을 세우고 기도한다고 할 때 신자라면 누구나 그 기도를 선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한 생각은 악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대한민국의 복음화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대한민국의 복음화가 아니라 택한 자기 백성을 자녀로 부르시고 자녀가 되게 하셔서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 택한 자를 때로는 실패하고 깨어지는 길로도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뜻과 생각이 아무리 선하게 여겨진다고 해도 결코 선하다고 할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성령 받음은 인간의 옛 본성을 지배한 상태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 받은 사람은 옛 본성이 지배되는 상태에서 기도하게 되어 있고,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옛 본성에 의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자신만을 바라보지만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만 분명하게 부각되어지는 것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받음은 옛 본성이 지배되는 것으로 증거 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성령 받음을 무시하거나 표적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유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로 귀신이 예수님에 의해 쫓겨 나가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 나간 것은 마귀의 권세가 예수님에 의해 장악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마귀 장악되어 있던 자가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을 어떤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한 일

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23절의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순순히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생각일 뿐, 과연 진심으로 그러한지는 성경을 통해서 면밀히 생각 해봐야 할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기도도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즉 주의 기도가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하고 그 소원을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로 아버지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래 본성은 이러한 소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추구하는 본래의 소원은 앞서 말한 대로 자기 확대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는 것이 소원이 아니라 창고에 양식이 가득 해져서 그것으로 배부름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 추구하는 소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버려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자신의 소원으로 자리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 마음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세력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쫓겨나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입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세력이 쫓겨 나가게 되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을 모으고 쌓는 일에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무엇을 따르는 것입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까?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무엇이 예수님과 함

께 하지 않는 것인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의 본성대로 살게 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게 하되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볼 수 없도록 소경의 상태로 붙들어 놓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면 결국 복음은 복음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이유배반적인 모습만 나타날 뿐입니다. 이것이 지금 기독교인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현실은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곧 생명이 되심은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소유의 녀역함이 자신의 삶을 보장한다는 생각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살고 예수님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소유를 힘으로 삼고 그 힘을 자신의 영광으로 여기며 그것으로 자기 가치를 높이고 삶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었습니다. 귀신에게 장악된 귀신 들린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강한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21,22절)**는 말씀이 바로 우리를 귀신에게서 해방하게 하신 예수님의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실상이 어떠한가를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실상은 더러움 그 자체입니다. 제아무리 깨끗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고 해도 인간은 그 누구도 더러움이라는 실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렘 17: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즉 인간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할 뿐이지 선하고 깨끗한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같은 자신의 실상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자신의 실상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아야 예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깨끗하게 함으로써 신자다워지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생각에 지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사는 것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며 사람로부터 칭송을 듣는 도덕적인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며 도덕적 삶에 힘을 쓰게 되면 예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더러운 자신을 더러움에서 건져주신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는 이 은혜로 인해서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면서 도덕적인 삶을 사는 일에 힘을 썼다면 결국 자신의 깨끗함을 자랑하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24-26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내 집이라고 일컫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된 것을 좋아하여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 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좋아하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면서 바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런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고 그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에만 마음을 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가진 것이 있되 아무것도 없는 자로 주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이 생명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신의 확대나 소유의 증가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주어진 영생이라는 선물로 인해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자는 소유의 여부나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인해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 백성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세상에 머물기를 소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머무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유의 증

가와 자신의 확대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더욱 가치가 있어지고 높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의 인생만 생각한다면 후자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에 마음이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닥칠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이 운명의 자리에서 무엇이 여러분이 진심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 있는 것인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 가셔서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노후 문제에는 관심을 두고 노후문제로 인해 염려도 하고 여러 준비를 하면서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는 이러한 풍조를 따라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살리신 주를 바라보게 되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가 내게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인해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인해 새롭게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사람은 늘 불안과 염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과 염려로 인해서 사람이 추구하는 즐거운 삶과도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염려도 불안도 떨쳐 버리고 편히 살고 싶어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내가 있는 곳에 어김없이 함께 하는 것이 불안, 염려, 근심, 걱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처럼 불안과 염려가 있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안감이 생기고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하면 된다 라든가 하나님이 반드시 도

주일오우설교

시 112:1-10

건고한 마음

(116장 3.31일 설교)

와주실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함으로써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위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는 생각이 자기 암시가 되어서 잘 된다는 기대와 착각에 빠지게 됨으로 일시적으로 불안과 염려가 해소되는 현상인 것이지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난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라는 자기 암시가 아니라 '주가 하신다' 는 것을 받아들이고 주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도 견고한 마음이 되게 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8절에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고 말합니다. 마음이 견고하다는 것은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뜻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는 이유는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나의 유익을 위한 선한 일로 믿고 있기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견고한 마음이고, 이런 마음이라면 어떤 일에도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설사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고 해도 그 또한 선하신 하나님의 일임을 믿는다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견고한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7절을 보면 **“그는 흥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이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고 말하는데, 우리는 흥한 소문을 듣게 되면 불안하게 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게 됩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견고한 마음은 우리가 스스로 결심하고 마음을 굳게 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서 하나님께 두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견고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한 복이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은 세상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세상이 생각하는 복과 동일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됨과 신자의 신자 됨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도 소위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더 잘되는 현실에서 과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복을 세상이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누구나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고 누리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늘에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고 말합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이 복이 될 수 있습니까? 대개 기독교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하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즐거워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이 왜 복이 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 한다는 것은 여호와께 마음을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마음을 두게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과 기다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이루실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세상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주어진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그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은 세상의 것이 많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편한 삶을 행

복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신자가 진심으로 행복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상투적인 말로 들릴 수 있겠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야말로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 안에서 신자는 어떤 일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견고한 마음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2절부터의 내용입니다. 2절부터는 복의 내용에 대해 말하는데 후손이 땅에서 강성한다고 하고, 3절에서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직, 공의, 자비, 긍휼, 의에 대해 말합니다. 사실 부와 재물은 정직, 공의, 자비, 긍휼, 의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복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부와 재물도 곧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말을 하는데 부와 재물은 이스라엘의 사고방식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부와 재물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또 그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들을 강성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부와 재물이 있게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부자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부요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증거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다면 부와 재물이 있다고 해도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을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정의와 정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의와 정직에 의해서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즐거워하는 복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와 재물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진정한 부요가 되는 다른 세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루신 하나님나라이며 이 나라에 마음을 두는 그가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복의 나라에 거하고 있고, 이것을 가장 잘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되고 못되는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도 주를 바라보는 견고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의 믿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믿음은 하나님은 고통에 빠진 자기 백성을 도와서 고통에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것이고, 참된 선지자는 포로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70년이 되어야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인간을 고통의 삶에서 건져주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방인들이 자기 신을 찾듯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무너뜨리시고 고통의 길로 밀어 넣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일이라는 것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유다가 죄를 지었으니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포로라는 고통의 삶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고 말합니다. 무서워 떠는 자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으니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와 같은 상황에서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앞으로 바벨론에서 포로 된 신분으로 살려면 유다에서 누렸던 자유와 편안함은 포기해야 합니다. 대신 억압과 고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미래라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평안은 커녕 두려움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가 그동안 잘못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와서 편히 잘살게 해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은혜가 하루하루 편하게 잘 사는 것 아

수요일설교
렘 30:1-11

돌아오게
하리라

(74장 3.27일 설교)

납니까? 하지만 이런 생각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은 무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은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르게 나타나고 증거 됨으로써 세상이 어떻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신자가 은혜를 삶의 풍족함이나 편안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편할 때는 하나님을 잘 믿겠다며 이런 저런 일에 열심을 내게 되지만 편치 못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부질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였기 때문에 포로 된 상황에서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슬프다 그 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뱀을 얻으리로다”** 고 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유다를 환난에서 구하여 내시고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리시고 포박도 끊으시고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일을 작정하시고 유다를 포로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뜻 안에서 포로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작정하셨으면서 왜 포로 되게 하신 것입니까? 등산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다시 내려 올 것을 힘들게 왜 올라가느냐?”** 는 것입니다. 이것은 등산으로 인한 유익과 정상에 올랐을 때 산 아래에서는 느낄 수 없는 쾌감과 즐거움이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면서 왜 포로 되게 하시는가?”** 라는 것은 포로 되게 하심으로 유다가 얻게 될 유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말인 것입니다. 유다는 포로 된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은혜고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유다를 포로 되게 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사람이 제 아무리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해도 여전히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자로 부름 받았음을 잊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길로 가는 것일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 포로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형편만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가 비록 무너지고 포로가 되긴 했지만 저주는 아닌 것입니다. 이방인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께 버린 받은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유다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본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물론 고통과 어려움을 무조건 사랑으로 여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는 여호와와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홀렸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은 구원의 대상이지 멸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에 따라 징계는 받습니다.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고 자신이 죄 없는 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마음을 두며 세상 것을 힘으로 삼고자 할 때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에 마음을 두게 하기 위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유다를 돌아오게 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포로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유다는 언제 돌아갈 것인가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왜 포로 되게 하셨는지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유다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자기 구원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자신이 알게 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낼 증거물로 존재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으로 여겼던 것들이 무너짐으로 인해 애당초 내 것은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 것 자체가 복 있는 자입니다. 이 복으로 기뻐할 수 있기 바랍니다.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9장

교 독 : 35(시84편)

기 도 : 이영민 장로

찬 송 : 144장

성 경 : 눅 11:14-26

말 씀 : 하나님 나라(56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305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1장

축 도 : 설 교 자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304장

기 도 : 김종건 집사

찬 송 : 423장

성 경 : 시 115:1-18

말 씀 : 여호와를 의지하라(119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542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예레미야 강해(78강)

■ 교회소식 ■

1. 다음 주 오전예배 때 황경영 집사 권사 취임식과 장영옥 권사 은퇴식이 있습니다.

●
다음주 기도

오전 - 조규현 장로 오후 - 김종건 집사

이단 ㉗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구원의 완성이므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통일교의 구원론 또한 성경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밖에 없다. 통일교는 구원을 영적 구원과 육적 구원으로 나누어 말하면서 완전한 구원은 영육양면의 구원이라고 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육적 구원은 실패한 것으로 여긴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신자 또한 육적 구원에 실패한 자들이며, 그 증거가 아담의 원죄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인데 아담의 원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죄를 청산하지 못하고 죄의 길로만 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이후의 신자들은 영적 구원의 혜택만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 완성된 것은 영적 구원에 대한 기대일 뿐이라는 것이 문선명의 교리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말씀하셨던 '다 이루었다'는 것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구원 섭리의 기대를 다 이루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애당초 육적 구원이 포함된 완전한 구원은 재림 후에 하실 일로 미뤄 놓으시고 세상에 오신 것이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영적 구원 섭리에 대한 기대만이라도 조성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원리강론에 의하면 완전한 속죄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생령나무로 다시 와서 인류를 자신에게 접붙임 함으로 자범죄 뿐 아니라 원죄까지 속죄 받을 수 있게 할 재림주로 인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지상 천국 건설에 실패했기 때문에 말세에는 재림 예수가 그 일을 완성할 것이라고 하고, 예수의 재림은 한국에서 이루어지며 그가 곧 문선명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탕감 복귀설이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인간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인간과 하나님 양쪽의 협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설이다. 구원은 본래 인간의 책임 분량을 수행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고, 인간이 저지른 원죄 또한 그 대가를 지불해 줌으로써 씻어질 수가 있는데 그 대가를 인간이 지불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즉 이들이 말하는 탕감이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자기 책임 분량을 수행함으로써 인간의 본연의 위치와 상태로 복귀하기 위하여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일이며, 탕감복귀의 섭리를 이를 마지막 재림 예수는 인간 지도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림 예수는 한 남성으로 한국 땅에서 태어나 한 여자를 찾아 하와와 뱀이 만들어 낸 사악한 육적 관계를 씻어 낼 수 있는 사랑을 통하여 참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메시야는 인류의 참부모가 된다고 한다. 통일교가 주장하는 재림예수는 한국을 중심으로 하여 하늘나라의 왕권을 세우고 만국의 통일을 이루어 세계 인류의 왕이 되며 영원한 지상 천국을 완성한다고 한다. 이처럼 원리강론의 모든 교리는 문선명을 재림 예수로 내세우는 것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이다.

통일교는 전 세계적으로 축복식이라고 하는 합동결혼식을 거행하는데 이는 문선명과 그의 부인 한학자를 참부모로 전 인류가 한 형제가 되어 하나의 혈통 세계를 이루는 것이 그 의미이고 목적이다. 현재는 세계평화와 통일이정연합이라는 이름과 참가정이라는 구호 아래 종교적인 색채를 배제한 채 주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결혼상담소 등을 운영하여 과거 통일교의 이미지를 탈피하는데 주력하고 있다.